

보도시점

2025. 9. 22.(월) 17:00

배포

2025. 9. 22.(월) 09:00

송미령 장관, 추석 성수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계획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보은군 소재 사과 농가 및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찾아 사과 수확·선별·출하 상황 점검 및 현장 관계자 격려
- 15개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 공급 및 역대 최대 500억원 규모 할인지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월) 오후,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소재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출하 현장을 격려하고, 사과 재배농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15개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 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며,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500억원)과 함께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연계해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추석 성수기 소비자 체감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과, 배, 단감,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애호박,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이날 현장을 안내한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 출하 의향도 높고, 추석 품종인 홍로 외 아리수, 양광 등 다른 품종의 출하량도 증가하면서 추석 성수기 사과 공급량은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추석 성수기 사과배 등 주요 과일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APC 방문에 앞서 사과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생육 상황을 살피고, 해당 농가와 참석한 지자체, 농협 등 관계자들에게 과일 성수기를 맞아 출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막바지 생육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사과, 배를 포함한 주요 과일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도매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추석 성수기 공급량 또한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수확 시까지 생육관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추석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사과(홍로) 도매가격

- 추석 D-3주 기준 : (평년) 50,819원/10kg (‘24) 72,611 → (‘25) 59,266원(평년비 16.6%↑, 전년비 18.4%↓)
- 최근 도매가격 : (8.하) 75,735/10kg → (9.상) 66,964 → (9.중) 60,946(전순비 9.0%↓)

또한,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중소과 중심의 과일 실속선물세트 공급을 전년보다 확대(2024년 10만개 → 2025년 15만개)하고, 제수용 사과배 3개 들이 소포장 팩(10만개)도 같이 공급하여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책임자	과 장	신지영 (044-201-2251)
		담당자	사무관	이창형 (044-201-2260)

